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WELCOME
마음을 여는 대화

친교부장

가족끼리는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 핀잔이나 잔소리로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먹고 다니냐?"가 "사랑한다"는 뜻인 것처럼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혹은 내가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무뚝뚝한 잔소리를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번역해 본다면 진짜 뜻은 무엇일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WORSHIP
마음을 드리는 찬양

찬양부장

‹ 금주의 찬양 : 기대(주 안에 우린 하나 ›

찬송가 : 어머니의 넓은 사랑 (새찬송가 579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찬송가 220장)

복음성가 악보는 뒷면에 있습니다.

WORD Ⅰ
말씀 나눔

에베소서 6장 1~4절 (신약 315면) 목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1-2)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WORD Ⅱ
은혜 나눔

전도부장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

1.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축복의 약속이 담긴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 생각이나 고집 때문에 부모님(또는 삶의 영적 권위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나요? '주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내가 꺾어야 할 내면의 고집이나 변화되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라는 부르심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 가정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 부모로서(혹은 어른으로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잣대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성찰하며 나누어 봅시다.

WORK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기도부장

목장 내에 서로 살피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나누며

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대 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② 목장과 가정을 위한 기도: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눈 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소식나눔(주보참고) : 비전부장

'주기도문'으로 목장모임을 마칩니다.

기대

천강수


B♭ F/A Gm7 F E♭ B♭/D Cm7 F
주안에우린하 나 - 모습은달라 도 - 예수님 한 분만바라네
B♭ F/A Gm7 F E♭ B♭/D Cm7 F
사랑과선행으 로 - 서로를격려 해 - 따스함 - 으로 보듬어 - 가리 -
E♭ E♭m B♭/D G7 Cm7 F E♭ F
주님우 리안에 함 께하시니 - 형제자 - 매의 - 기 쁨과슬 - 픔느 - 끼네 -
E♭ E♭m B♭ F/A Gm7 E♭ Cm7 F E♭/F F E♭/F F
내안에 있는 - 주님 모 습보네 그분기뻐하 - 시 - 네 -
B♭ F/A D7/F♯ Gm7 E♭ B♭/D Cm7 F7
주 - 님우릴통 - 해 계획하 - 신일 - 부족한 - 입술로 - 찬양 하게하 - 신일 -
B♭ F/A D7/F♯ Gm7 E♭ F7 B♭
주 - 님우릴통 - 해 계획하 - 신일 - 너 를통해하실일기대 - 해